



2026. 9. 16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변동금리 '숨고르기'...넥 달 연속 오르던 코픽스 동결

매일경제 <https://zrr.kr/tVKJmB>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넥 달 간의 상승세가 멈춘 상황
최근 코픽스 오름세로 낮은 금리를 쫓아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차주들의 부담도 점차 늘어났지만 이번 동결로 새로 대출을 받는 차주의 금리 인상 압박은 다소 완화될 전망

2000조 기업대출 당달아 커진 '부실'

매일경제 <https://zrr.kr/cdpOZb>

올해 들어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기업들의 은행 부채도 2000조원에 육박
2022년 대비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여신 증가율과 비교하면 부실여신 증가 속도가 약 3.7배 빠른 셈으로,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업 건전성에 주의가 필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 연 2800억 독박...영국은 효과 미미

머니투데이 <https://zrr.kr/a9qsR0>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면 금융회사들이 연간 28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돼도 사기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
금융당국이 벤치마킹 사례로 삼은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후 환급률 자체는 늘어난 한편, 금융사기의 규모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제한적

외면받는 은행대리업...우체국서 대출 23건뿐

매일경제 <https://zrr.kr/53H4EL>

농어촌 지역 등 4대 은행 점포가 없는 지방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은행대리업의 시행 초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
시험사업을 시행한 50여 일간 대출이 실행된 건수는 전국에서 단 23건(실행액 총 1억5050만원)으로, 전국 20개 우체국 지점을 통틀어 하루에 한 건의 대출도 이뤄지지 않은 셈

안전자산이 금리 5%...국내 회사채 순발행 82% 금감에 '만기절벽' 불안

머니투데이 <https://zrr.kr/rf3GTE>

글로벌 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확대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81.9% 감소했는데 신규 발행이 위축된 상황에서 만기 상환규모가 더 늘면 기업들이 차환에 실패하는 '만기 절벽'이 올 가능성도 제기

K중시 두드리는 외국기업들... 증권업계 주관사 경쟁도 치열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BjHHDY>

중국기업의 잇단 부실 사태 이후 사실상 닫혀 있던 외국기업의 코스닥 문이 미국 바이오와 인도 핀테크 기업들로 다시 열리고 있는 모습
국내 IPO 경쟁이 포화된 증권사들도 해외 발행사 확보전에 들어간 모양새

초대형 GA들 정착지원금 폐지... 설계사 구하기 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hJIBRs>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 시행 이후 정착지원금 제도를 줄줄이 폐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까지 초년도 모집수수료 한도에 포함되면서 설계사 영입 비용에 제약을 받아 자구책을 마련한 것

자동차보험 적자 심화... '8주율' 내년 보험료 낮출까

비즈워치 <https://zrr.kr/gV91uW>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합산비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6년 만에 적자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8주율이 실제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

美클래리티법, 상원 문턱 못 넘었다...가상자산 입법 좌초

이데일리 <https://zrr.kr/AeNwMv>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과 가상자산 감독권한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Act)이 끝내 미국 상원 통과에 실패
상원 공화당이 가장 강력한 윤리조항을 담았다고 자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충분치 않다는 반응

여의도·코인판 '짜짓기'... '남은 빚' 누구 품에

뉴스1 <https://zrr.kr/VmZ4RY>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
증권사들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나서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필요한 거래 경험과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장에서는 빚의 전략적 파트너에 관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